

江戸語에 나타나는 サ行変格活用複合動詞의 上一段化現象에 관한 考察

金 鎔 均*

目 次

1. 序 論
2. 調査 資料 및 考察 方法
 - 2.1 調査 資料
 - 2.2 考察 方法
3. サ変複合動詞의 上一段化 實態
4. 上一段化의 전체적인 傾向
5. 結 論

1. 序 論

본고에서는 江戸中期 이후, 특히 安永~安政期(1772~ 1859)의 江戸語에 나타나는 サ行変格活用複合動詞(이하, 'サ変複合動詞'라고 약칭함)의 上一段化現象에 대해, 전체적인 傾向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¹⁾. サ變複合動詞의 上一段化現象이란 二段活用動詞의 一段化現象, 四段活用動詞의 上一段化現象, ナ行変格活用動詞의 四段化現象, 下一段活用動詞「蹴る」의 四段化現象 등과 함께 近世日本語 文法史上 動詞의 중요한 변화 사실로서, サ變

* 高麗大學校 日本學研究센터 研究助教授

1) 본고에서 고찰 시기를 江戸中期 이후로 한정된 이유는 江戸語의 경우, 적어도 그 이전과는 달리 당시부터 江戸語資料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또한 용례수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좀 더 명확한 上一段化의 전체적 傾向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複合動詞(「案ずる」「重んずる」「察する」등)가 上一段活用動詞(「案じる」「重んじる」「察る」등)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活用方式(強變化·弱變化·混合變化)의 관점에서 보면 混合變化(サ行變格活用)에서 弱變化(上一段活用)로 이행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江戸語에 나타나는 サ變複合動詞의 上一段化現象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면 주로 湯沢幸吉郎²⁾·岩井良雄³⁾·松村明⁴⁾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문제는 선행 연구의 경우, 대부분 당시의 제한적인 자료를 통한 부분적인 용례의 언급 내지는 약간의 기술 수준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제한적인 자료에 의거한 결과 용례수의 부족으로 인해 통계적인 수치를 근거로 한 분석적인, 上一段化의 전체적인 傾向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바로 이 점이 본고의 출발점이자 연구 목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에 의거하면서, 당시의 새로운 용례 발굴에 역점을 두고 安永~安政期の 자료 72種을 조사 대상으로, 時期的으로 늦은 江戸末·明治期の 和英辭典인 『和英語林集成 初版·2版·3版』(1867~1886)에 보이는 サ變複合動詞의 上一段化 傾向①サ變漢語複合動詞<이하, 漢語複合動詞라고 약칭함>의 上一段化 진행 속도는 サ變和語複合動詞<이하, 和語複合動詞라고 약칭함>의 上一段化보다 빠르다 ②ザ行系 動詞의 上一段化 진행 속도는 サ行系 動詞의 上一段化보다 빠르다 ③上一段化의 傾向은 語幹 末尾音이 長音이거나 撥音인 경우에 나타나는 가운데 長音인 動詞의 上一段化 진행 속도는 撥音인 動詞의 上一段化보다 빠르다 ④會話文의 上一段化 진행 속도는 地文의 上一段化보다 빠르다 등)⁵⁾과 비교하면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活用方式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이행을 보이는 二段活用動詞의 一段化에 나타나는 당시의 전체적인 傾向(①動詞의 一段化 진행 속도는 助動詞의 一段化보다 빠르다 ②上二段活用動詞의 一段化 진행 속도는 下二段活用動詞의 一段化보다 빠르다 ③終止·連体形の 一段化 진행 속도는 已然形の 一段化보다 빠르다 ④少音節動詞의 一段化 진행 속도는 多音節動詞의 一段化보다 빠르다 ⑤文體的인 면에서 보면

2) 湯沢幸吉郎(1990) 『増訂江戸言葉の研究』, 明治書院, pp.114~116

3) 岩井良雄(1974) 『日本語法史·江戸時代編』, 笠間書院, pp.60~62

4) 松村明(1986) 『日本語の展開』, 『日本語の世界2』, 中央公論社, pp.134~137

5) 飛田良文(1963)의 『和英語林集成におけるサ變複合動詞の上一段化』(『國語学研究』3, pp.26~37)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上一段化 遲速 차이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會話文의 一段化 진행 속도는 地文의 一段化보다 빠르다 ⑥位相的인 면에서 보면 女性語의 一段化 진행 속도는 男性語의 一段化보다 빠르다 등)6)과도 비교하면서, 江戸語에 나타나는 サ變複合動詞의 上一段化 실태와 진행 정도, 그리고 이를 통한 전체적인 傾向을 遲速 차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은 江戸末·明治期の 『和英語林集成』에 나타나는 サ變複合動詞의 上一段化 傾向 및 당시 二段活用動詞의 一段化 傾向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江戸語와의 遲速 차이가 지적되는 上方語 傾向7)과의 비교를 위한 전단계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調査 資料 및 考察 方法

2.1 調査 資料

조사 자료는 安永~安政期の 대표적인 江戸語資料[1]~[72]의 72種⁸⁾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成立(刊行)時期 별로 보면 安永期(1772~1780)의 자료가 [1]~[12]의 12種, 天明期(1781~1788)의 자료가 [13]~[25]의 13種, 寛政期(1789~1800)의 자료가 [26]~[51]의 26種, 享和期(1801~1803)의 자료

6) 拙稿(2003a) 「江戸語에 나타나는 二段活用の 一段化 傾向과 完了時期에 관한 考察 江戸中期 이후 上方語와 비교를 중심으로 -」 『日本文化學報』 17, 韓國日本文化學會, pp.17~ 39

___(2003b) 「江戸中期 이후 上方語에 나타나는 二段活用の 一段化現象에 관한 考察 一段化의 傾向과 完了時期를 중심으로 -」 『日本學報』 55-1, 韓國日本學會, pp.15~ 35

7) 松村明, 前掲書(4), pp.135~137

8) 본고에서의 조사 대상인 江戸語資料 72種 이외에도 江戸咄本類인 『間上手』(1773) 및 滑稽本類인 『東海道中膝栗毛初~5編』(1802~1806)과 黄表紙類인 『金々先生榮花夢』(1775) 『見徳一炊夢』(1781) 『莫切自根金生木』(1785) 『大悲千祿本』(1785) 『文武二道万石通』(1788)를 비롯하여, 江戸洒落本類인 『郭中奇譚』(1769) 『遊子方言』(1770) 『兩國菜』(1771) 『俠者方言』(1771) 『甲駈新話』(1775) 『寸南破良意』(1775) 『妓者呼子鳥』(1777) 『壳花新駈』(1777) 『北遊穴知鳥』(1777) 『南江駈話』(1778) 『深川新話』(1779) 『美地の鱈殻』(1779) 『竜虎問答』(1779) 『駈舎三友』(1779) 『呼子鳥』(1779) 『蚊不喰呪咀曾我』(1779) 『喜夜来大根』(1772~1780) 『道中粹語録』(1780) 『多佳余宇辞』(1780) 『通仁枕言葉』(1781) 『真女意題』(1781) 『卯地臭意』(1783) 『居統借金』(1783) 『角鷄卵』(1784) 『田舎芝居』(1786) 『古契三娼』(1787) 『廓大帳』(1789) 『傾城買四十八手』(1790) 『繁千話』(1790) 『錦之裏』(1791) 『奇談飯根草』(1796) 『意妓口』(1799?) 『手管見通五蔵眼』(1789~1800) 『大門雛形』(1794~1800?) 『契情買言告鳥』(1800) 『青楼真廓誌』(1800) 『二蒲団』(1801) 『後編遊治郎』(1802) 『標客三駄誌』(1802) 『倡客數學問』(1802)을 조사하였지만, サ變複合動詞例 및 上一段化例는 보이지 않았다.

가 [52]~[65]의 14種, 文化期(1804~1817)의 자료가 [66]~[68]의 3種, 天保期(1830~1843)의 자료가 [69]~[71]의 3種, 安政期(1854~1859)의 자료가 [72]의 1種이다. 그리고 자료 별로 보면 江戸咄本類가 3種([1][2][12]), 江戸歌舞伎脚本類가 4種([4][57][67][72]), 黄表紙類가 6種([6][17][20][27][30][35]), 人情本類가 3種([69][70][71]), 滑稽本類가 2種([66][68])이고, 나머지는 모두 江戸洒落本類로 54種이다. 이 중에서 江戸咄本類는 『噺本大系9』([1])·『岩波日本古典文学大系100』([2][12]), 江戸歌舞伎脚本類는 『岩波新日本古典文学大系96』([4])·『岩波日本古典文学大系54』([57][67][72]), 黄表紙類는 『岩波日本古典文学大系59』, 人情本類는 『岩波日本古典文学大系64』([69][70])·『小学館日本古典文学全集47』([71]), 滑稽本類는 『岩波日本古典文学大系63』([66])·『小学館日本古典文学全集47』([68]), 江戸洒落本類는 『洒落本大成』을 底本으로 사용하였다. 이하, 본고에서 조사 대상으로 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 하던 다음과 같다.

- | | | |
|-----------------------|-----------------------|----------------------|
| [1] 楽牽頭(1772) | [2] 鹿の子餅(1772) | [3] 南閨雜話(1773) |
| [4] 御撰勸進帳(1773) | [5] 婦美車紫鹿子(1774) | [6] 高漫齋行脚日記(1776) |
| [7] 郭中掃除雜編(1777) | [8] 契情買虎之卷(1778) | [9] 伊賀越増補合羽之竜(1779) |
| [10] 醉姿夢中(1779) | [11] 家暮長命四季物譚(1779) | [12] 鯛の味増津(1779) |
| [13] 新吾左出放題盲牛(1781) | [14] 公大無多言(1781) | [15] 富賀川拜見(1782) |
| [16] 大劇場世界の幕なし(1782) | [17] 御存商売物(1782) | [18] 三教色(1783) |
| [19] 深川手習草紙(1785) | [20] 江戸生艶氣樺燠(1785) | [21] 福神粹語録(1786) |
| [22] 通言総籬(1787) | [23] 青楼五雁金(1788) | [24] 一目土堤(1788) |
| [25] 女郎買之糠味増汁(1788) | [26] 中洲の花美(1789) | [27] 孔子縞于時藍染(1789) |
| [28] 格子戲語(1790) | [29] 京伝予誌(1790) | [30] 心学早染艸(1790) |
| [31] 仕懸文庫(1791) | [32] 娼妓絹籠(1791) | [33] 四ツ谷新宿西遊記(1791) |
| [34] 北廓鷄卵方(1794) | [35] 敵討義女英(1795) | [36] 名所拜見(1796) |
| [37] 郭通遊子(1797) | [38] 傾城買二筋道(1798) | [39] 辰巳婦言(1798) |
| [40] 廓数可佳妓(1798) | [41] 手管早引廓節要(1798) | [42] 傾城買談客物語(1799) |
| [43] 二筋道後篇廓の癖(1799) | [44] 客衆一華表(1789~1800) | [45] 玉之帳(1789~1800) |
| [46] 孔雀そめき(1789~1800) | [47] 部屋三味線(1789~1800) | [48] 品川海苔(1789~1800) |
| [49] 大磯新話風俗通(1800) | [50] 疇昔の茶唐(1800) | [51] 三篇二筋道宵之程(1800) |
| [52] 恵比良濃梅(1801) | [53] 比翼紫(1801) | [54] 三千之紙屑(1801) |
| [55] 商内神(1801) | [56] 千客万奇(1801) | [57] 名歌徳三舛玉垣(1801) |

- | | | |
|----------------------|--------------------|-----------------------|
| [58]青楼小鍋立(1802) | [59]起承転合(1802) | [60]夢汗後篇妓青返夢(1802) |
| [61]甲子夜話後篇姪意奴(1802) | [62]穴可至子(1802) | [63]後編にほひ袋(1802) |
| [64]青楼日記(1802) | [65]遊僊窟烟之花(1802?) | [66]浮世風呂(1809~1813) |
| [67]お染久松色読販(1813) | [68]浮世床(1813~1814) | [69]春色梅児誉美(1832~1833) |
| [70]春色辰巳園(1833~1835) | [71]春告鳥(1836~1837) | [72]小袖曾我薊色縫(1859) |

2.2 考察 方法

고찰 방법은 먼저 자료 72種(단, 序·跋은 자료에 따라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상존하는 만큼 고찰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제외한다)에 등장하는 サ変複合動詞例와 上一段化例⁹⁾를 모두 추출한 다음에 漢語複合動詞와 和語複合動詞로 분류하고, 漢語複合動詞의 경우는 다시 サ行系 動詞와 サ行系 動詞, 語幹 末尾音が撥音인 動詞와 長音인 動詞 및 促音인 動詞의 上一段化例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終止·連体形과 已然形, 地文과 會話文 및 男性語와 女性語의 上一段化例로 분류하여 전체적인 傾向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진술한 『和英語林集成』에 나타나는 サ変複合動詞의 上一段化 傾向 및 二段活用動詞의 一段化 傾向과 비교하면서 고찰하도록 하였다.

3. サ変複合動詞의 上一段化 實態

江戸語에 나타나는 サ変複合動詞의 上一段化의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安永~安政期の 자료[1]~[72]에 등장하는 サ변複合動詞例와 上一段化例를 각 자료 별로 地文과 會話文 및 終止·連体形과 已然形으로 분류하여 <표1>로, 이를 토대로 72種에 보이는 전체적인 傾向 파악을 위한 上一段化率을 <표2>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9) 단, サ行系 動詞의 경우는 サ行系 動詞와 달리 거의 上一段化 傾向이 보이지 않는 만큼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從來 즉, 前掲書(2)의 p.116과 前掲書(4)의 p.135에 上一段化 傾向이 보인다고 지적된 「結する」, 「察する」 등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丑1> サ変複合動詞の上一段化 實態

資料	活用		サ変		上一段		資料	活用		サ変		上一段		
	地	會	止	已	止	已		地	會	止	已	止	已	
安永	[1]楽牽頭 (1772)	地	1				天明	[24]一目土堤 (1788)	地					
	[2]鹿の子餅 (1772)	會			1			[25]女郎買之糠味増汁 (1788)	會	1			1	
	[3]南閩雑話 (1773)	地							[26]中洲の花美 (1789)	地	1			
	[4]御撰勸進帳 (1773)	會	1		1				[27]孔子綺于時藍染 (1789)	會				
	[5]婦美車紫鹿子 (1774)	地	2						[28]格子戯語 (1790)	地	2			
	[6]高漫齊行脚日記 (1776)	會	1						[29]京伝予誌 (1790)	會	5			
	[7]郭中掃除雑編 (1777)	地	2					寛政	[30]心学早染艸 (1790)	地				1
	[8]契情買虎之巻 (1778)	會	4		1				[31]仕懸文庫 (1791)	地				1
	[9]伊賀越増補合羽之巻 (1779)	地	1						[32]娼妓絹鏡 (1791)	會		1		1
	[10]酔姿夢中 (1779)	會		1					[33]四ツ谷新宿西遊記 (1791)	地				1
	[11]家暮長命四季物語 (1779)	會			1				[34]北廓鶏卵方 (1794)	地				1
	[12]鯛の味増津 (1779)	會	1						[35]敵討義女英 (1795)	地		1		
[13]新吾左出放題盲牛 (1781)	地	3				[36]名所拜見 (1796)	會		1					
[14]公大無多言 (1781)	會	1				[37]郭通遊子 (1797)	地		1					
[15]富賀川拜見 (1782)	會			1		[38]傾城買二筋道 (1798)	地					1		
[16]大劇場世界の幕なし (1782)	會			1		[39]辰巳婦言 (1798)	會		1	(1)				
[17]御存商売物 (1782)	地			1		[40]酈数可佳妓 (1798)	地					1		
[18]三教色 (1783)	會	1				[41]手管早引廓節要 (1798)	地					1		
[19]深川手習草紙 (1785)	會			1		[42]傾城買談客物語 (1799)	地	1						
[20]江戸生艶気 樺焼 (1785)	會	1				[43]二筋道後篇 廓の癖 (1799)	地				1			
[21]福神粹語録 (1786)	會			1		[44]客衆一華表 (1789~1800)	地	1			1			
[22]通言総籙 (1787)	地	1				[45]玉之帳 (1789~1800)	地				1			
[23]青楼五雁金 (1788)	會	1				[46]孔雀そめき (1789~1800)	會	2						

資 料		活 用		上一段		資 料		活 用		上一段	
		止·体	已	止·体	已			止·体	已	止·体	已
寛 政	[47]部屋三味線 (1789~1800)	地			1		享 和	[60]夢汗後篇妓情 返夢解(1802)	地		2
	[48]品川海苔 (1789~1800)	地	2					[61]甲子夜話後篇 姫意妃(1802)	地	1	1
	[49]大磯新話風俗通 (1800)	地			1			[62]穴可至子 (1802)	地		1
	[50]疇昔の茶唐 (1800)	地						[63]後編にほひ袋 (1802)	地		1
	[51]三篇二筋道 宵之程(1800)	地			3			[64]青楼日記 (1802)	地		1
		會			3	1		[65]遊僊窟烟之花 (1802?)	地		1
									會		1
享 和	[52]恵比良濃梅 (1801)	地			2		文 化	[66]浮世風呂 (1809~1813)	地		
	[53]比翼紫 (1801)	地			1			[67]お染久松色読販 (1813)	地	3	4
	[54]三千之紙屑 (1801)	地	(1)		1			[68]浮世床 (1813~1814)	地	2	2
	[55]商内神 (1801)	地	3						會	1	1
		會									
和 保	[56]千客万奇 (1801)	地			1		天 保	[69]春色梅児誉美 (1832~1833)	地		
	[57]名歌徳三舛玉垣 (1801)	地						[70]春色辰巳園 (1833~1835)	地		3
	[58]青楼小鍋立 (1802)	地	3		1			[71]春告鳥 (1836~1837)	地	2	5
	[59]起承転合 (1802)	地			2				會	1	1
		會			1		安 政	[72]小袖曾我薊色縫 (1859)	地		1
								會	3		

- * () 안의 숫자는 和語複合動詞의 용례수를 의미하고, 그 외는 漢語複合動詞의 용례수를 의미한다.
- * 地는 地文, 會는 會話文을 의미하고, 止·体는 終止·連体形, 已는 已然形을 의미한다 (이하, 동).

<표2> ㅅ變複合動詞의 上一段化率

文體	活用形	漢 語			和 語			合 計		
		ㅅ變	上一段	上一段化率	ㅅ變	上一段	上一段化率	ㅅ變	上一段	上一段化率
地文	止·体	39	20	33.9	1		0	40	20	33.3
	已	3		0				3		0
	計	42	20	32.3	1		0	43	20	31.7
會話文	止·体	36	52	59.1	3		0	39	52	57.1
	已	3	2	40.0				3	2	40.0
	計	39	54	58.1	3		0	42	54	56.3
計	止·体	75	72	49.0	4		0	79	72	47.7
	已	6	2	25.0				6	2	25.0
	計	81	74	47.7	4		0	85	74	46.5

4. 上一段化의 전체적인 傾向

전술한 <표1>의 サ変複合動詞의 上一段化 실태와 <표2>의 上一段化率, 그리고 자료 72種의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통해 江戸語에 나타나는 サ변複合動詞에 있어서 上一段化의 전체적인 傾向으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 ①漢語複合動詞의 上一段化 진행 속도는 和語複合動詞의 上一段化 보다 빠르다.
- ②漢語複合動詞의 경우, サ行系 動詞의 上一段化 진행 속도는 サ行系 動詞의 上一段化보다 빠르다.
- ③漢語複合動詞의 경우, 語幹 末尾音이 撥音인 動詞의 上一段化 진행 속도는 長音인 動詞의 上一段化보다, 長音인 動詞는 促音인 動詞의 上一段化보다 빠르다.
- ④終止·連体形의 上一段化 진행 속도는 已然形의 上一段化보다 빠르다.
- ⑤文體的인 면에서 보면 會話文의 上一段化 진행 속도는 地文의 上一段化보다 빠르다.
- ⑥位相的인 면에서 보면 女性語의 上一段化 진행 속도는 男性語의 上一段化보다 빠르다.
- ⑦サ變複合動詞의 上一段化 진행 속도는 二段活用動詞의 一段化보다 느리다.

먼저 傾向①은 전술한 <표2>에 보이는 漢語複合動詞와 和語複合動詞의 上一段化率 비교를 통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할 만큼 뚜렷한 傾向으로서 인정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漢語複合動詞의 上一段化率(47.7%)은 上一段化例의 존재 자체를 볼 수 없는 和語複合動詞의 上一段化率(0%) 상황과 좋은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傾向은 地文과 會話文 및 活用形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전혀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漢語複合動詞에 있어서 地文의 上一段化率(32.3%) 및 會話文의 上一段化率(58.1%)은 和語複合動詞에 있어서 地文의 上一段化率(0%) 및 會話文의 上一段化率(0%)보다 현저한 우위를 보인다. 또한 活用形의 경우, 和語複合動詞의 용례 부재로 인해 비교가 불가능한 已然形을 제외한, 漢語複合動詞에 있어서 終止·連体形의 上一

一段化率(49.0%)은 和語複合動詞에 있어서 終止·連体形の 上一段化率(0%)보다 현저한 우위를 보인다. 이와 같은 傾向은 和語複合動詞의 경우 サ變複合動詞例([4])가, 漢語複合動詞의 경우 上一段化例([52][60])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음 예문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4]命を軽んずる事、英雄の先んずる所、サア、宝劍をお澳しなされい。
 (御撰勸進帳, 132-15)

[52] 圃おめへがなんぼきらいでも。むかふじやア。ほれているからあんじるなあんじるな
 (恵比良濃梅, 19上9)

[60] あんじるよりうむがやすいといゝながらうゐざんなり……猶さらに あんじる心もひとかた
 らず (夢汗後篇妓情返 夢解, 140下7)

이와 같이 漢語複合動詞의 上一段 진행 속도가 和語複合動詞의 上一段化보다 빠른 주된 원인으로, 하나는 音節數(連用形에 있어서 音節數를 의미한다. 이하, 동)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前者의 경우는 三音節語(「案じる」「通じる」 등)¹⁰⁾로 後者の 四音節語(「先んじる」「安んじる」 등)보다 音節數가 적어 그 변화 속도가 빨랐을 것으로 推定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推定은 전술한 바와 같이 少音節動詞의 一段化 진행 속도가 多音節動詞의 一段化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二段活用動詞의 一段化 傾向을 고려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또 다른 하나는 漢語複合動詞가 和語複合動詞보다 사용 기회가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 기회가 많으면 그만큼 언어 내부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쳐 그 변화의 가능성 또한 클 것으로 推定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傾向①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예문이 있는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54] 末室の小便臭には手前弁当の結びを甘んず……大小をせり立て門限を案じるお屋
 敷あれは腰の廻りをねらふ悪玉あり (三千之紙屑, 346上8)

이와 같은 점에서 본다면 傾向①은 『和英語林集成』에 나타나는 上一段化 傾向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傾向②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サ行系 動詞와 サ行系 動詞 간에 있

10) 「御覽じる」와 같은 四音節動詞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三音節動詞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어서 上一段化率의 비교가 필요한데, 분석 결과를 <표3>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3> ザ行系 漢語複合動詞와 サ行系 漢語複合動詞의 上一段化率

文體 \ 活用	ザ行系			サ行系		
	サ変	上一段	上一段化率	サ変	上一段	上一段化率
地文	41	20	32.8	1		0
會話文	35	54	60.7	4		0
計	76	74	49.3	5		0

전체적으로 보면 ザ行系 動詞의 上一段化率(49.3%)은 上一段化例의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サ行系 動詞의 上一段化率(0%)보다 현저한 우위를 보이고, 이와 같은 우위는 地文과 會話文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인정되는 만큼 특징적인 傾向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ザ行系 動詞에 있어서 地文의 上一段化率(32.8%) 및 會話文의 上一段化率(60.7%)은 サ行系 動詞에 있어서 地文의 上一段化率(0%) 및 會話文의 上一段化率(0%)보다 뚜렷한 우위를 보인다. 이하, ザ行系 動詞의 上一段化例를 모두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案じる(55) 禁じる(1) 献じる(1) ご覧^{らん}じる(1) 順じる(1) 煎じる(3)
 損じる(1) 談じる(2) 通じる(4) 封じる(2) 焙じる(3)

특히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上一段化例가 「案じる」에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점인데¹¹⁾, 이는 본래 사용 기회가 많다는 점과 후술하는 傾向③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진일보한 上一段化의 傾向을 보이는 語幹 末尾音이 撥音인 動詞라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傾向②는 『和英語林集成』의 上一段化 傾向과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傾向③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語幹 末尾音에 따른 上一段化率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분석 결과를 <표4>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1) 湯沢幸吉郎(1982)의 『徳川時代言語の研究』(風間書房, p.84)에 의하면 이와 같은 傾向은 江戸中期의 上方語에도 보인다고 지적된다.

<표4> サ変漢語複合動詞의 語幹 末尾音에 따른 上一段化率

文體 \ 語幹	撥 音			長 音			促 音		
	サ変	上一段	上一段化率	サ変	上一段	上一段化率	サ変	上一段	上一段化率
地文	29	16	35.6	12	4	25.0	1		0
會話文	25	48	65.8	10	6	37.5	4		0
計	54	64	54.2	22	10	31.3	5		0

전체적으로 보면 語幹 末尾音이 撥音인 動詞의 上一段化率(54.2%)은 長音인 動詞의 上一段化率(31.3%)보다, 長音인 動詞의 上一段化率은 促音인 動詞의 上一段化率(0%)보다 우위를 보인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우위는 地文과 會話文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인정되는 만큼 주목된다 하겠다. 예를 들면 地文의 경우, 語幹 末尾音이 撥音인 動詞(35.6%)·長音인 動詞(25.0%)·促音인 動詞(0%)의 上一段化率 순으로 나타나고, 會話文 또한 撥音인 動詞(65.8%)·長音인 動詞(37.5%)·促音인 動詞(0%)의 上一段化率 순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 傾向③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傾向③, 특히 동일 인물에 의한 것으로 語幹 末尾音이 撥音인 動詞와 長音인 動詞의 上一段化 遲速 차이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예문이 있는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4](伝九郎)さて案じる事はない。(御撰勸進帳, 325-12)

(伝九郎)その頃、奥より熊野へ詣^{まよ}ずる山伏ありしが、其山伏も義経公。

(상동, 382-10)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傾向이 長音인 動詞·撥音인 動詞 순으로 보이는 『和英語林集成』의 上一段化 傾向과 다르다는 점이다. 단순히 취급 자료에 따른 우연한 결과인지, 아니면 上一段化의 推移 속에서 나타나는 時期的인 차이에 따른 결과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금후 上方語의 傾向을 파악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로 語幹 末尾音이 撥音인 動詞와 長音인 動詞의 上一段化의 구체 예문을 각 자료 별로 몇 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撥音인 動詞의 上一段化例>

[16]いゝぜそろねへと内であんじるから (大劇場世界の幕なし, 227下17)

[21] 夫婦ひそひそだんじるを見せにてもれ聞。(福神粹語録, 297下15)

[33] 晝へ置^{ひら}く事はきんじるぜ。(四ツ谷新宿西遊記, 83上3)

[64] もしそんじる物ならば人手にかゝらぬその内に了簡するのはたがひの胸

(青楼日記, 350下16)

[65] おかみさんこんだくる時に狂歌の額を献じるぜ (遊僊窟烟之花, 102下5)

[66] ハテ、万事が夫に順じるから、金銀は猶の事、(浮世風呂, 257-9)

[71] あしたっからはおれが煎じるから、おめへはチツ内の事をしてやつてくんな。

(春告鳥, 466-11)

<長音인 動詞의 上一段化例>

[19] 俗な耳へは通^{つう}じめへが。通じる様に云^いつから。(深川手習草紙, 162上11)

[45] 小ねこをひざへあげてどうこひばちでちやをほうじる (玉之帳, 231下3)

[59] そこで。ふじる時にとりちげへて。こつちへよこす文を田舎へやり。

(起承転合, 87上13)

[67] しかし白蛇を妙見様で御覽じるとは、有難ひ事でござりまするハ。

(お染久松色読販, 181下11)

그리고 傾向④는 전술한 <표2> 즉, 전체적으로 보면 終止·連体形의 上一段化率(47.7%)이 已然形의 上一段化率(25.0%)보다 현저한 우위를 보이는 상황을 통해 특징적인 傾向으로서 인정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우위는 地文과 會話文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인정된다. 예를 들면 終止·連体形의 경우, 地文의 上一段化率(33.3%) 및 會話文의 上一段化率(57.1%)은 已然形에 있어서 地文의 上一段化率(0%) 및 會話文의 上一段化率(40.0%)보다 우위를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傾向④는 二段活用動詞의 一段化 傾向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본래 已然形의 경우 終止·連体形에 비해 사용 기회가 적다는 점¹²⁾과 接続助詞「ば」「ど」「ども」와 결합한 형태가 하나의 언어단위 즉, 多音節語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終止·連体形에 비해 진행 속도가 느린, 已然形에 있어서 上一段化의 구체 예문을 모두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2) 이와 같은 사실은 전술한 <표2> 즉, 終止·連体形의 サ変複合動詞例(79)가 已然形의 サ変複合動詞例(6)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3] 茶をせんじぬいけりやせんじぬい。とつてこごとをいふ煎^{せん}しれば。(南閩雜話, 57上16)

[5] おまへさんはナンゾおもしろい事^{こと}が^はできはせぬかとあんじれば

(三篇二筋道宵之程, 140上5)

또한 文體的인 면에서 나타나는 傾向⑤도 전술한 <표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뚜렷한 傾向으로서 인정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會話文의 上一段化率(56.3%)은 地文의 上一段化率(31.7%)보다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이와 같은 우위는 活用形 즉, 終止·連体形과 已然形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活用形의 경우, 會話文에 있어서 終止·連体形의 上一段化率(57.1%) 및 已然形의 上一段化率(40.0%)은 地文에 있어서 終止·連体形의 上一段化率(33.3%) 및 已然形의 上一段化率(0%)보다 우위를 보인다. 이처럼 地文의 上一段化 진행 속도가 會話文의 上一段化보다 느린 원인은 본래 地文의 성격 즉,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된 언어보다도 더욱 규범적인 언어를 사용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에 기인하는 것¹³⁾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傾向⑤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예문이 있는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44] なんとせうつれてにげるぞあんじるな……芸妓^{はなり}の空咲^{そらわらひ}はチャチャを禁^{きん}するとほとんどわらふ

事^{こと}あ^はた^はず客^{きやく}に坐敷^{ざしき}のながきあれは床急^{どいそ}あり (客衆一華表, 200上14)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傾向⑤는 『和英語林集成』의 上一段化 傾向 및 二段活用動詞의 一段化 傾向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位相的인 면에서 나타나는 傾向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會話文중에 사용되는 男性語와 女性語 간에 있어서 上一段化率의 비교가 필요한데, 분석 결과를 <표5>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5> 男性語와 女性語의 上一段化率

13) 拙稿(2004) 「江戸語에 나타나는 助動詞의 一段化 傾向에 관한 考察 -(き)する와 (ら)るる 간의 遲速 차이를 중심으로-」 『日本文化學報』 22, 韓國日本文化學會 p.52

活用 性別	漢語			和語			合計		
	サ変	上一段	上一段化率	サ変	上一段	上一段化率	サ変	上一段	上一段化率
男性語	38	34	47.2	3		0	41	34	45.3
女性語	1	20	95.2				1	20	95.2

<표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女性語의 上一段化率(95.2%)이 男性語의 上一段化率(45.3%)보다 현저한 우위를 보이는 만큼 특징적인 傾向으로서 인정된다 하겠다. 이는 上一段化의 흐름이 男性보다는 女性에게 더욱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면 傾向⑥은 二段活用動詞의 一段化 傾向과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傾向⑦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비슷한 時期의 江戸語資料와의 비교가 필요한데, 분석 결과를 <표6>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6> 二段活用動詞의 一段化率과 サ変複合動詞의 上一段化率

資料 文體	明和~文化期(1769~1813) 江戸語資料 25種 ¹⁴⁾						安永~文化期(1772~1814) 江戸語資料 68種 ¹⁵⁾		
	上二段	上一段	上一段化率	二段	一段	一段化率	サ変	上一段	上一段化率
地文	4	12	75.0	81	205	71.7	41	18	30.5
會話文	2	25	92.6	7	370	98.1	39	45	53.6
計	6	37	86.0	88	575	86.7	80	63	44.1

전체적으로 보면 サ変複合動詞의 上一段化率(44.1%)은 二段活用動詞의 一段化率(86.7%)보다 현저한 열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와 같은 열세는 地文과 會話文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인정된다. 예를 들면 サ変複合動詞에 있어서 地文의 上一段化率(30.5%) 및 會話文의 上一段化率(53.6%)은 二段活用動詞에 있어서 地文의 一段化率(71.7%) 및 會話文의 一段化率(98.1%)보다 현저한 열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는 上一段化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는 上二段活用動詞의 上一段化率(86.0%)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로인 상황이다. 실제로 傾向⑦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예문이 있는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4) 拙稿(2003a), 前掲書(6), p.24

15) 본고에서의 조사 대상인 자료 72種 중, 비슷한 時期의 자료 간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天保期の 3種(『春色柳兒譽美』, 『春色辰巳園』, 『春告鳥』)과 安政期の 1種(『小袖曾我薊色縫』)을 제외한, 68種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 [4]しからばよろしゆふ、頼^{たの}み存^{ぞん}ずる。ト仲藏^{ちゆうざう}控^{ひか}へる。(御撰勸進帳, 349-14)
- [28]木場鱸^{ばば}沢^{ざい}は捨^すり過^すると。……友とする者^{とも}は地廻^{ちまわ}り来^{きた}りて格子^{かうし}先^{せん}の世界^{かい}を弁^{べん}ずるゆへ。(格子戯語, 150下7)
- [71]それ人情^{にんじやう}を察^{さつ}すること、いといと難^{かた}き所^{ところ}為^なれども、……情^{じやう}をかける^かけるを人情^{にんじやう}のおもむきを
知る人といふべし。(春告鳥, 455-1)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은 サ變複合動詞의 上一段化 진행 속도는 二段活用動詞의 一段化보다 느리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傾向⑦의 근거가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하면, 당시 二段活用動詞의 一段化는 이미 完了 様相을 보이며, サ變複合動詞의 上一段化는 併用 様相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兩者 間に 있어서 遲速 차이가 보이는 원인은 歴史的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二段活用動詞의 一段化例는 이미 奈良·平安時代(710~1086)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平安末·鎌倉時代(1086~1333)를 거쳐 後代에 영향을 미치면서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보이지만¹⁶⁾, サ變複合動詞의 上一段化例는 이보다 훨씬 늦은 江戸中期 즉, 元禄期(1688~1703)부터 보이기 시작하여¹⁷⁾, 상대적으로 一段化가 이루어진 기간이 짧았던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サ變複合動詞의 上一段化現象은 이른바 活用形式의 單純化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변화에 있어서는 일찍이 奈良·平安時代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진일보한 傾向을 보이는 二段活用動詞의 一段化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推定된다.

5. 結 論

지금까지 江戸中期 이후, 특히 安永~安政期の 江戸語에 나타나는 サ變複合動詞의 上一段化現象에 대해, 전체적인 傾向을 중심으로 하여 당시 江戸語資料 72種(江戸洒落本類 54種, 黄表紙類 6種, 江戸歌舞伎脚本類 4種, 江戸咄本類 3種, 人情本類 3種, 滑稽本類 2種)의 上一段化 실태 분석 결과

16) 拙稿(2001)「平安末·鎌倉時代に 있어서 二段活用の 一段活用化現象 --一段活用化例의 再檢討와 全體的인 傾向을 中心으로--」 『日本語文學』 10, 韓國日本語文學會 pp.423 ~465

17) 湯沢幸吉郎, 前掲書(11)

를 토대로 『和英語林集成』의 上一段化 傾向 및 二段活用動詞의 一段化 傾向과 비교하면서 고찰해 보고, 또한 遲速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지적할 수 있었는데, 上一段化의 전체적인 傾向을 중심으로 이를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漢語複合動詞의 上一段化 진행 속도는 和語複合動詞의 上一段化 보다, 漢語複合動詞의 경우 ザ行系 動詞의 上一段化 진행 속도는 サ行系 動詞의 上一段化보다 빠르다.

둘째, 漢語複合動詞의 경우, 語幹 末尾音이 撥音인 動詞의 上一段化 진행 속도는 長音인 動詞의 上一段化보다, 長音인 動詞는 促音인 動詞의 上一段化보다 빠르다.

셋째, 終止·連体形의 上一段化 진행 속도는 已然形의 上一段化보다 빠르며, サ變複合動詞의 上一段化 진행 속도는 二段活用動詞의 一段化보다 느리다.

넷째, 文體的인 면에서 보면 會話文의 上一段化 진행 속도는 地文의 上一段化보다, 位相的인 면에서 보면 女性語의 上一段化 진행 속도는 男性語의 上一段化보다 빠르다.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サ變複合動詞의 上一段化는 漢語複合動詞와 和語複合動詞, ザ行系 動詞와 サ行系 動詞, 語幹 末尾音, 終止·連体形과 已然形, 地文과 會話文, 男性語와 女性語 간에 따라 다양한 遲速 차이를 보이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和英語林集成』의 上一段化 傾向 및 二段活用動詞의 一段化 傾向과의 공통점과 차이 점도 알 수 있었다. 특히 『和英語林集成』의 上一段化 傾向과의 비교시, 語幹 末尾音이 撥音인 動詞의 上一段化 진행 속도가 長音인 動詞의 上一段化보다 빠르다는 사실, 또한 活用形 및 位相 간에 따른 遲速 차이가 보인다는 사실은 주목된다.

금후는 이와 같은 고찰을 토대로 본고에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職業·階層 간에 따른 遲速 차이 여부와, 上方語資料를 조사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上方語의 傾向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江戸語와 上方語 간의 遲速 차이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和英語林集成』와는 달리 語幹 末尾音이 撥音·長音·促音인 動詞의 순으로 上一段化 傾向을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參考文獻】

- 岩井良雄(1974)『日本語法史・江戸時代編』, 笠間書院, pp.60~62
- 飛田良文(1963)「和英語林集成におけるサ変複合動詞の上一段化」『国語学研究』3, pp.26~37
- 松村明(1986)「日本語の展開」『日本語の世界2』, 中央公論社, pp.134~137
- 湯沢幸吉郎(1982)『徳川時代言語の研究』, 風間書房, p.84
- _____(1990)『増訂江戸言葉の研究』, 明治書院, pp.114~116
- 拙稿(2001)「平安末・鎌倉時代に 있어서 二段活用の 一段活用化現象 —一段活用化例의 再檢討와 全體的인 傾向을 中心으로—」『日本語文學』10, 韓國日本語文學會, pp.423~465
- _____(2003a)「江戸語에 나타나는 二段活用の 一段化 傾向과 完了時期에 관한 考察 -江戸中期 이후 上方語와 比較를 중심으로-」『日本文化學報』17, 韓國日本文化學會, pp.17~39
- _____(2003b)「江戸中期 이후 上方語에 나타나는 二段活用の 一段化現象에 관한 考察 —一段化의 傾向과 完了時期를 중심으로—」『日本學報』55-1, 韓國日本學會, pp.15~35
- _____(2004)「江戸語에 나타나는 助動詞의 一段化 傾向에 관한 考察 -(さ)する와 (ら)るる 간의 遲速 차이를 중심으로-」『日本文化學報』22, 韓國日本文化學會, p.52

要 旨

本稿では、江戸中期以降、特に安永～安政期の江戸語に現われるサ変複合動詞の上一段化現象について考察してみた。特に、全体的傾向を中心に当時の江戸語資料72種(江戸洒落本類54種、黄表紙類6種、江戸歌舞伎脚本類4種、江戸咄本類3種、人情本類3種、滑稽本類2種)の上一段化の実態の分析結果に基づき、『和英語林集成』の上一段化の傾向及び、二段活用動詞の一段化の傾向と比較しながら、遅速差の原因についても検討してみた。その結果、幾つかな特徴的事実が明らかにされたが、上一段化の全体的傾向を中心にまとめると、大略次のようである。

- ①漢語複合動詞の上一段化は和語複合動詞の上一段化より、漢語複合動詞の場合、ザ行系動詞の上一段化はサ行系動詞の上一段化より早い。
- ②漢語複合動詞の場合、語幹末尾音が撥音の動詞の上一段化は長音の動詞の上一段化より、長音の動詞は促音の動詞の上一段化より早い。
- ③終止・連体形の上一段化は已然形の上一段化より早く、サ変複合動詞の上一段化は二段活用動詞の一段化より遅い。
- ④文体的な面から見ると、会話文の上一段化は地文の上一段化より早い。
- ⑤位相的な面から見ると、女性語の上一段化は男性語の上一段化より早い。

つまり、このような考察を通してサ変複合動詞の上一段化は漢語複合動詞と和語複合動詞、ザ行系動詞とサ行系動詞、語幹末尾音、終止・連体形と已然形、地文と会話文、男性語と女性語間によって様々な遅速差を見せながら進んだということが確認できた。また、『和英語林集成』の上一段化傾向及び、二段活用動詞の一段化傾向との共通点と相違点も確認できた。

キーワード：江戸語, サ変複合動詞, 漢語複合動詞, 和語複合動詞, 上一段化, 遅速, 傾向

투 고 : 2006. 5. 31
1차 심사 : 2006. 6. 10
2차 심사 : 2006. 7. 1

住 所 : (561-78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동국A 104동 304호

電 話 : 063-252-6361

e-mail : kygyun@hanmail.net